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을 통하여 본 중세 우리 나라 유물론철학의 발전 (2)

박 문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은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89페이지)

철학, 세계관은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왔다.

13세기 후반기-14세기말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사상조류로서 성리학과 반불사상이 등장하면서 철학의 중심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제기되였다.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를 뚜렷하게 제기하고 해결한 철학자는 정도전이었다.

정도전(호는 삼봉, ?~1398)은 고려시기 반불투쟁을 총화하고 불교철학에 리론적타격을 준 14세기의 철학가이며 사회정치활동가이다.

정도전이 제기한 철학의 중심문제는 심, 기, 리의 호상관계문제였다.

정도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기리편》이라는 글을 썼으며 이밖에 《불씨잡변》, 《심문천답》, 《리호연명자후설》을 비롯한 여러 글들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각도의 해답을 주었다.

한편 정도전과 동시대인이며 그의 사상적영향을 받은 권근(호는 양촌, 1352-1409)도 이러한 철학적문제점을 포착하고 정도전의 글을 해석한 《심기리편주》, 《심기리편서》, 《심문천답서》, 《불씨잡변설서》, 《삼봉집서》 등을 써서 이에 합세하였다.

정도전은 무엇보다먼저 령혼(심)과 육체(기)의 호상관계문제를 제기하고 기의 1차성과 심의 2차성을 원리적으로 립증하였다.

정도전은 현실세계의 사물현상을 정신적실체인 《심》으로부터 발생한 《가상》이 아니라 기를 본체(그가 《본체》라고 한것은

기가 아니라 리를 세계의 시원, 본질로 보려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로 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실체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그는 《기의 엉키고 모인것이 형질이 되고 신기가 된다.》(《삼봉집》 권9 불씨잡변 불씨작용시성지변)라고 하면서 《무릇 우주에 가득찬 사물은 모두 이 기를 얻어 그것을 체로 삼고있다. 귀신이 어둡고 밝은것이냐 해와 달, 별들이 반짝이는것이냐 음양이 부딪쳐 우리와 벼락으로 되는것이냐 축축한것이 비와 이슬로 되고 산악과 강, 바다가 흐르거나 솟아있으며 새, 짐승, 초목들이 번식하는것은 다 기가 체로 되는것이다.》(《삼봉집》 권4 설 리호연명자후설)라고 하였다.

정도전에 의하면 우주자연의 본체는 《호연의 기》이며 이것이 음양의 기로 되고 음양의 기가 모이고 엉키여 5행의 기가 갖추어지며 음양5행의 기가 서로 엇갈리게 작용하고 합쳐져서 6가지 쌍범주(통색, 정편, 청탁, 후박, 고하, 장단)로 표현되는 기로 갈라지고 이것들이 여러가지로 묘하게 결합되어 다양한 천지만물과 사람이 생성한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나 유정자(생명체)나 무정자(무생명체)의 차이, 사람들의 지혜롭고 우둔하고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차이, 사람들사이의 귀천의 차이나 장수와 요절의 차이도 다 기를 어떻게 타고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삼봉집》 권9 불씨잡변 불씨인과지변)

이와 같은 생성도식을 통하여 그는 《호연의 기》를 본체로 하는 천지만물의 생성과정에 사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야 사람의 정신, 의식인 심이 발생하게 되었다는것을 립증함으로써 결국 기가 1차적이고 심이 2차적이라는것을 리론적으로 확인하

였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그는 육체와 정신의 호상관계에 관한 관념론적견해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그는 령혼(정신)을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실체로 보는 불교관념론적견해를 반대하면서 령혼은 사람의 육체와 그를 이루고있는 기에 의존되어있으며 따라서 사람이 죽고 기로 이루어진 육체가 없어지면 령혼도 소멸된다고 인정하였다. 정도전은 령혼과 육체의 이러한 관계를 불과 나무와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불이 나무로 인해서 있는것과 같이 혼(정신)은 백(육체적인것)으로 하여 생긴다. 불이 소멸되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돌아가는것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체백은 땅에 남는다. 불의 연기는 곧 사람의 혼이고 불의 재는 곧 사람의 체백이다. 불이 없어지면 연기와 재가 다시 합해져서 불이 될수 없으니 사람이 죽은 후 혼과 체백도 다시 합해져서 혼백이 될수 없다.》, 《불교에서 사람은 죽어도 정신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삼봉집》 권9 불씨잡변 불씨륜회지변)라고 함으로써 령혼소멸론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는 심을 세계의 시원, 본질로 보면서 세계의 영원불멸한 본질은 정신적인 심이라고 주장하는 불교관념론을 철학원리적으로 비판극복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정도전은 다음으로 심기리가운데서 세계의 시원,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실 정도전이 심기리의 호상관계문제를 철학의 중심문제로 설정한 근본목적은 리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철학원리적으로 확증하고 리를 체현한 봉건사회의 신분질서와 왕권에 기초한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이론적으로 안받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대사회에 류포되어있던 불교철학이 세계의 본질을 정신적실체인 심으로 보면서 현실세계의 객관적실재성과 다양성을 거부하고있던 조건에서 관념적실체인 리를 내세우는 경우 부득불 물질적인 기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도전은 불교관념론을 반대할 때에는 유물론에 의거하고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유물론적요소들을 적지 않게 제기하였으나 철학의 근본립장에서는 철저히 성리학적관념론에 서있었다.

즉 그는 불교관념론을 반대하면서 심에 비한 기의 선차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의 근본시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심, 기에 앞서 리를 내세우고 심, 기가 리로부터 파생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천지만물이 있기 전에 필경 태극이 먼저 있어 천지만물의 리가 이미 그가운데 혼연히 갖추어져있었다.》(《삼봉집》 권9 불씨잡변 불씨진가지변), 《리는 천지에 앞서 존재하며 기는 리로 말미암아 생기고 심도 또한 받는다.》(《삼봉집》 권10 심기리편 리유심기)라고 하였다. 정도전은 천지만물이 발생할 때에는 리와 기를 다 갖추게 되는데 기는 《형이하자》이고 리는 《형이상자》이기때문에 반드시 리가 있는 다음에 기가 있게 되니 기를 말하면서 리를 말하지 않는것은 그 말단을 알면서도 근본은 알지 못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삼봉집》 권10 심기리편 리유심기)

이것은 정도전이 리를 기와 심과의 관계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시원적인것으로 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정도전은 심과 기의 호상관계문제해결에서는 유물론적립장에 기초하여 기를 내세웠으나 리기호상관계문제해결에서는 물질적실체(기)와 분리된 그의 리치, 법칙, 속성의 선차성 즉 《리선기후》의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관념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정도전이 말하는 리는 객관적인 사물의 리치, 법칙, 속성을 의미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견해는 추상적개념으로서의 리를 사물과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실체로 전환시킨 객관관념론적견해였다.

정도전이 세계의 객관적실재성과 그 물질성을 인정하고 불교의 주관관념론적견해에 리론적타격을 가한것은 그 이후 철학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었다.

중세 우리 나라 철학은 15-16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15-16세기 성리학적관념론이 전사회를 지배하는 《관학》, 통치사상으로 등장하면서 철학의 중심문제도 이전시기와 다르게 제기되게 되었다.

15-16세기 우리 나라 철학에서는 물질적실체인 기와 그 속성인 리의 호상관계문제가 중심문제로 논의되었다.

유교성리학자들은 무엇보다먼저 리를 기와 분리되어있으면서 모든 사물현상과 현실세계보다 먼저 존재하는 초자연적이며 관념적인 실체로 보았다.

성리학의 대표자인 리언적(호는 회재, 1491-1553)은 리기선후차성문제를 논하면서 《리가 있는 다음에 기가 있다. 따라서 태극이 양의(음양)를 낳는다고 말한다. 그런즉 리가 비록 기와 떨어질수 없으나 실지로 기와 섞어서 말하지 않는다.》(《회재집》권8 잡저 답망기당제1서)라고 하였다.

16세기 리일원론철학의 대표자인 리황(호는 퇴계, 1501-1570)도 《천지사이에는 리와 기가 있다. 이 양자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리는 기를 낳고 기를 지배하며 기는 리에서 파생된것으로서 리의 지배를 받는다.》(《퇴계속집》권8 천명도설), 《리는 기의 주재자이며 기는 리의 재료이다.》(《퇴계집》권16 서 답기명언)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였던 리기호상관계문제해결에서 기에 대한 리의 규정성, 《리재기선》(리가 기에 앞서 존재한다.)을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의 관념론적립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리언적과 리황이 세계의 시원, 본질문제에서 관념론적립장에 선것은 그들의 계급적본질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그들은 리를 신비화하고 모든것의 주재자로 내세움으로써 절대군주인 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지배계급과 농노, 농민들의 사회적지위를 규제하여놓은 봉건적인 계급신분관계와 통치질서를 신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리황은 봉건지배계급은 리를 구현하고 피착취인민대중은 기를 구현한것으로 보면서 《리는 기의 통솔자이고 기는 리의 줄병》(《퇴계속집》권8 천명도설)이며 리는 고상하고 기는 천박하다고 함으로써 조선 봉건왕조사회에서 봉건통치계급의 지배적지위와 근로인민대중의 예속적지위를 절대화하였다.

유교성리학자들은 다음으로 리를 사물현상의 본성으로, 세계의 시원, 본질로 보면서 리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과 사물이 《반드시 이 리를 받은 다음에야 본성이 있게 된다.》(《퇴계속집》권8), 《리로써 말하면 모든 사물은 곧 하나의 사물이며 하나의 사물은 곧 모든 사물이다.》(《로사집》권8)라고 하면서 《리일분수설》을 주장하였다. 즉 리는 하나이지만 모든 사물현상들에 다 분포되어있다는것이다. 실례로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파도가 잔잔한 강물에 비칠 때에는 수천수만개의 달로 비치는것과 마찬가지로 리는 만사만물에 다 관통되어있다는것이다. 이것은 관념적실체인 리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을 주장함으로써 리의 발현인 봉건적륜리도덕규범, 중앙집권적통치체제의 확립과 그 보편타당성을 강조하자는

것이였다.

유교성리학자들은 리를 물질세계의 운동변화를 주재하는 동력, 원인으로 되는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다. 리황은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운동능력은 오직 리에만 있으며 기에는 그 어떤 운동능력도 없으므로 기의 자기 운동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리황은 이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날고 뛰는것은 기이지만 날고 뛰게 하는것은 리》라고 하였으며 리에 동, 정이 있기때문에 기의 동정이 있고 만약 리에 동, 정이 없으면 기가 동정할수 없다고 하였다.((퇴계집》권25 답정자중별지 권40 답와질문목중용)

유교성리학자들은 다음으로 리를 《인, 의, 례, 지, 신》, 《충, 효》 등과 같은 봉건륜리도덕범주를 합리화하기 위한 리론적기초로도 사용하였다.

그들은 륜리도덕에도 리를 부여하여 《군신지리》, 《부자지리》, 《부부지리》, 《장유지리》, 《붕우지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리는 실체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건적륜리도덕질서를 합리화하고 옹호하였다.

리언적은 이러한 리를 우주생성뿐 아니라 인륜도덕질서에까지 확대시켜 《도란 일용사물이 마땅히 행하게 하는 리로서 모두성의 덕이며 심에 구비되어있다. 모든 사물에 구비되어있으며 아무때나 그렇지 않

음이 없으니 잠시도 떠날수 없는것이다. 일용의 비근한것에서 군신으로 말하면 군신의 리가 있고 부자로 말하면 부자의 리가 있고 부부로 말하면 부부의 리가 있으며 장유로 말하면 장유의 리가 있고 붕우로 말하면 붕우의 리가 있으며 지어 출입, 기거동작하거나 일을 하며 사물에 접할 때 도 각기 리가 없는것이 없다.》(《회재집》권8 소 진수팔규), 《도는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는 군신, 부자, 부부, 장유간의 인륜이며 작게는 움직이고 정지하고 내리는 모든 것의 절제이다.》(《회재집》권5 잡저 답망기당 제3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15-16세기 성리학자들은 우주본체론에서 기를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실체로 인정하였지만 기에서 운동능력을 박탈하고 리에 운동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기를 리의 주재자적작용에 의하여 운동하는 리의 도구, 리의 《종복》으로 인정하였으며 리를 세계의 궁극적시원, 본질로 보면서 사회적륜리도덕관계를 포함한 사물현상, 현실세계보다 먼저 존재하는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정신적실체로 간주하였다.

15-16세기 우리 나라 철학에서는 리기호상관계문제를 둘러싸고 기일원론적견해와 성리학적견해가 대두하였으며 그 해결과정에 기일원론과 리일원론, 리기이원론이 갈라지게 되었다.